

제조업에서 유니콘급 권텀점프 만든다

부산형 앵커기업 육성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기업 성장 성과 확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동래 구 호텔농심에서 「2025 부산형 앵커기업 육성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부산형 앵커기업 육성 지원사업(매뉴콘 프로젝트)’은 부산 제조업의 재도약을 목표로,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전통 제조기업의 첨단 제조기업 전환과 ‘권텀점프’ 수준의 성장·도약을 지원하는 제조업 육성 프로젝트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부산형 앵커기업 ‘매뉴콘’의 추진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기업 성장 성과 확산과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보고회에서는 ‘매뉴콘 파트너스’ 업무협약(MOU) 체결을 비롯해 ▲사업 추진 경과 및 성과 공유 ▲우수 앵커기업 성과 발표 ▲앵커기업-신생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특히, 시와 부산테크노파크를 비롯한 13개 기업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한 ‘매뉴콘 파트너스 업무협약(MOU)’을 통해, ▲자금 ▲인력 ▲기술 ▲상당 ▲공간 ▲교육 등 기관별 지원 역량을 연계한 앵커기업 ‘전주기’ 공동 지원체계가 구축됐다. 협약을 계기로 각 참여기관은 ▲오픈이노베이션 ▲투자·금융 연계 ▲테스트베드 실증 지원 등 매뉴콘 프로젝트의 핵심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어진 앵커기업 사례 발표에서는 ▲1기 매뉴콘 기업 제일일렉트릭㈜ ▲2기 매뉴콘 기업 ㈜일주지앤에스, 조광페인트㈜의 주요 성과가 소개됐다. 마지막으로 ‘매뉴콘-스타트업 9x9 오픈이노베이션 설명회(밋업)’이 진행됐다.

부산시는 이번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오픈이노베이션과 연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우 기자

지자체 최초로 국가융합망 이원화 구축

경남도, 재난에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구현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경상남도는 18일, 행정통신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국가융합망 이원화 기반 ‘경상남도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품질의 행정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정 전반의 디지털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핵심은 행정통신망 자동 우회 체

계의 고도화다.

주요 전송 장비를 지역적으로 분리·구성해 특정 구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통신이 자동으로 우회되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극한의 재난 상황에서도 행정서비스와 소방통신망 중단을 방지하고, 통신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도내 시·군과 소방서 등 주요 행정기관 전송망을 주망과 예비망으로 구분하고, 통신사업자까지 이원화해 장애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지원을 통해 기존 단일 접속방식의 국가융합망을 이원화 구조로 고도화 하여, 경상남도청 청원청사와 서부청사를 각각 연계하는 체계로 구축한다.

이는 지자체 최초로 추진되는 혁신 사례이다. 아울러 통신 대역폭을 기존 대비 최대 25배까지 확대해 대용량 데이터 전송과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통신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지능형 관제, 빅데이터 활용 등 차세대 디지털 행정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도와 18개 시군, 소방 정보통신 담당자 등이 참석해 △국가융합망 경로 이원화 구축 방안, △통신 대역폭 확대, △스마트 도시안전망 통합 플랫폼 등 인공지능(AI)·지능형 시스템 연계를 고려한 통신 인프라 설계, △단계별 구축 일정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윤석 기자

시내버스 무료 이용 연령 70세로 확대

울산시가 어르신들의 교통 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울산시는 내년 2월 1일부터 ‘울부심 생활+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 사업의 대상 연령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기존 75세 이상 6만 5,000명에서 70세 이상 11만 9,000명으로 늘어나 5만 4,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 어르신은 일반 시내버스를 비롯해 울산역 연계 리무진버스를 포함한 직행좌석형 버스, 지선·마을버스 등 울산 지역 전체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울산시가 발급한 어르신 교통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카드미사용 시에는 일반 요금 1,500원(시내 일반버스 카드 기준)이 부과된다.

무료 이용은 월 60회로 제한되며 이는 기존 75세 이상 어르신 교통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환승 횟수는 이용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울산시는 이용 한도 초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잔여 이용 횟수 안내 체계(시스템)도 도입한다. 버스 차량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할 경우, 남은 이용 횟수가 5회와 1회일 때 각각 음성 안내가 제공돼 이용횟수 만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어르신 교통카드는 내년 1월 2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대리 발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7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울산시는 카드 발급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1주간 출생연도별 지정요일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1951년생은 월요일, 1952년생은 화요일, 1953년생은 수요일, 1954년생은 목요일, 1955~1956년생은 금요일에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는 2월 2일부터는 상시 발급이 가능하며, 1956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생일 이후 발급 대상이 된다.

이호근 기자

어린이집 유희공간 활용 2026년 초등방학 돌봄

경상북도, 선정기관 간담회 개최…사업지침 공유·시범운영 사례 소개



경상북도는 방학 기간 초등 저학년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우리 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18일 ‘2026년 우리 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선정기관 간담회’를 열고,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운영 방향과 세부 지침을 공유했다. 우리 동네 초등방학 돌봄터는 방학 기간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유희공간을 보유한 어린이집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초등 돌봄 시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보완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6년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내 어린이집 31개소(11개 시군)에서 방학 중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초 학습 보조,

독서·창의놀이, 체육활동, 안전교육과 함께 급·간식 및 중식도 지원한다. 모든 돌봄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된다.

경상북도는 선정된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초등 돌봄을 위한 별도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아동 안전과 생활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 지침 설명과 함께 2025년 여름방학에 시범운영을 실시했던 구미 무지개 어린이집의 운영 사례 발표도 진행돼, 현장 중심의 운영 비결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엄태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방학 기간은 맞벌이 가정 등 돌

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이 특히 커지는 시기”라며 “우리 동네 초등방학 돌봄터를 통해 아이들은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부모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025년 여름방학에 포함, 구미, 도청신도시(예천) 등 3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해 총 42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만족도 99%를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사업 규모를 확대했으며, 겨울방학이 연초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즉시 돌봄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다문화정책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정책 20년 포럼’을 개최했다.

한윤석 기자

눈에 확 띄고 안전하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시비 9억 9,000만 원 투입…어린이보호구역 15곳에 안전시설 설치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고자 올 한 해 어린이보호구역 15곳에 다양한 안전시설을 확충했다. 중구는 올해 시비 9억 9,000만 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 △안전 통학로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지능형(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3가지 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삼일초, 성안초, 무룡초 등 초등학교 9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막 포장과 미끄

럼 방지 포장을 실시하고,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도색해 시인성을 강화했다.

특히, 삼일초 인근 도로 618m 구간에는 분홍색과 노란색, 파란색 등 다양한 색상을 활용한 도막 포장을 적용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했다. ‘안전 통학로 조성’ 사업을 통해서도 경사지고 굴곡진 울산초 등하굣길 595m, 우정초 등하굣길 170m 구간에 설치된 보행자용 울타리를 충격에 강한 차량용 방호 울타리로 교체했다. 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울타리 색상을 노란색으로 통일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능형(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을 통해서도 울산초, 태화초, 남요초, 학성초 인근 횡단보도에 △정지선, 우회전 알림 지능형 전광판 △음성 안내기 △잔여 시간 표시 신호 등 등의 지능형 보행 안전장치를 설치했다.

해당 장치는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 정보를 분석해 안내하며 사고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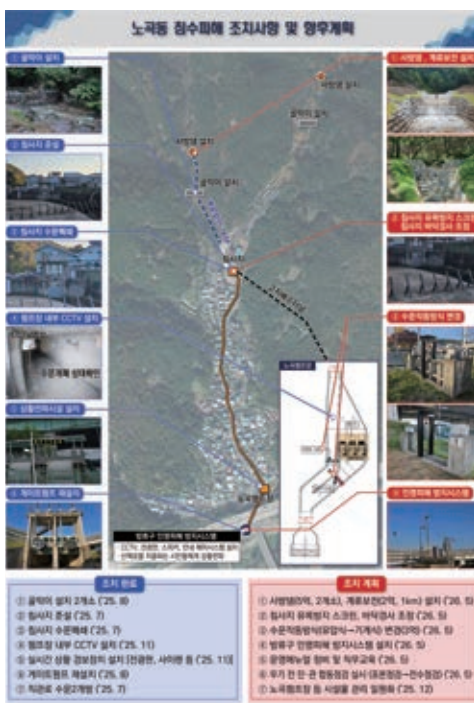
중구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안전시설을 확충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위한 도막 포장 및 지능형 기술을 활용한 안전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며 사고 걱정 없는 통학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에서 운영하는 울산 종갓집도서관이 ‘다시 만난 명작 동화-새롭게 피어나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특별 책 추천 전시(북 큐레이션)를 진행한다.

이호근 기자

노곡 배수펌프장 등 관리 주체 대구시로 일원화한다

5대 분야 재발 방지대책 추진, 펌프장 시설 개선, 점검 재보완



대구광역시시는 노곡동 지역에서 발생한 세차래의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이원화되어 관리·운영됐던 노곡 배수펌프장과 고지배수터널 등 관련 시설의 관리주체를 대구시로 일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5대 분야 재발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①노곡 배수펌프장 등 관리 일원화 ②시설물 보수보강 등 재해예방 시스템 전면 개선 ③매년 우기 전 민·관 합동점검 실시 ④펌프장 운영·작동 매뉴얼 현장중심 실제 교육 실시 ⑤노곡펌프장 시설물 적정성 검토 용역 추진 등 5대 분야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배수시설 및 관리·운영 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복구청 및 관계기관과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노곡 배수펌프장 등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동의하면서 그동안 복구청이 관리하는 시설을 대구시가 일괄 관리·운영하기로 합

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사무위탁 규약을 마련해 대구시 책임 아래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시는 이번 침수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직관로 수문 작동방식을 ▲유압식에서 기계식으로 전환 ▲직관로 수문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는 등 주요 시설물의 성능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또한, 노곡배수펌프장의 점검방식에 대해 ▲2~3년 주기 조사를 매년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 ▲관 위주의 점검을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으로 전환해 실시한다.

내년 우기전까지 펌프장 운영 및 작동 매뉴얼에 대해 현장직원을 대상으로 대구시 도시관리본부 주관하에 1차 교육을 실시하고, 2차로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 교육을 강화해 실시할 예정이다.

중장기 방안으로 제진기 및 관로 등 관련 시설물에 대한 개선사항이 필요한지 여부를 전문가 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한윤석 기자

통영 욕지 도동해역, 2026년 바다숲 대상지 선정됐다

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연안 해역에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이식해 생육 환경을 조성해 바닷속을 숲처럼 무성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바다숲 조성 사업을 통해 연안 생태계를 건강하게 회복하는 물론, 수산자원 증대와 어업인 소득 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영시는 2011년부터 사량면 둔지를 비롯한 13개소에서 총 1,787ha 규모의 바다숲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왔으며,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연안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통영시는 통영 고양이섬 용호도에 겨울철 한파로부터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고양이와 주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양이섬 추진위원회와 마을주민들이 협업체 ‘고양이 겨울 집’을 설치했다.

고양이들의 이동 동선과 서식 특성, 생태 전문가의 조언 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임회 하에, 생활 공간 침범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해 총 36개소가 섬 곳곳에 배치됐다.

고양이집 구입 예산은 ‘통영 용호도 고양이섬 K-관광명소 육성 사업’으로 추진된 행사에 참여한 단체의 수입금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받아 마련된 것으로, 민간 협치한 우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최성룡 기자